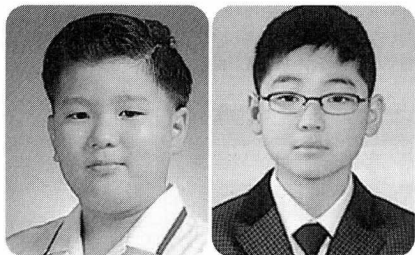


2006년 「학생 건강글짓기 현상공모 및 독도체험단 모집」 행사 결과



우리 대한결핵협회와 소년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06년 학생 건강글짓기 현상공모 및 독도체험단 모집행사에서 서울예일초등학교 6학년 5반 박응건 학생이 초등부 최고상을, 부산내성중학교 1학년 6반 정일우 학생이 중등부 최고상(부문별 최고상:보건복지부장관 상장)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2,829명(편)의 학생이 응모하여 그 중 20명(편)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독도를 소재로 제작한 2006년 크리스마스 썸 발행으로 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 결핵과 크리스마스 썸 그리고 독도사랑을 소재로 공모한 글짓기 행사를 열어 입상한 학생 20명은 우리 땅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사랑과 함께 2006년 크리스마스 썸 "I ♥ Dokdo"를 알리는 기회를 가지는 등 뜻깊은 현상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사진은 최고상 수상자인 박응건(좌), 정일우(우) 학생

2005년 사망원인 통계결과로 본 결핵

통계청에서 9월 발표한 우리나라 2005년도 사망원인 통계 결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5.5명(남자7.8명 / 여자3.3명)이 호흡기결핵으로 사망하였으며 하루 평균 7명이 사망하였다.

사망자수는 남자가 1,892명, 여자가 808명으로 2005년도에 총 2,700명이 호흡기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사망원인 순위를 보면, 20대에서 인구 10만명당 46명이 사망하여 화재사고 다음인 10위를 나타냈고, 30대가 인구 10만명당 124명으로 10위, 40대가 328명으로 9위, 50대에서 305명으로 9위를 나타냈다.

이번 통계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20, 30대 젊은층에서도 결핵이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감염성 질환으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통계청 발표, 2006. 9.-